

보도일시

(인터넷) 즉시 보도 가능
(지면) 즉시 보도 가능

배 포 2024. 6. 24.(월) 13:00

목포해수청, 해남 황산면에 수중암초의 위험을 알리는 등표 신설

- 어민들에게 항해 위험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 기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산소항 전면 해상 간출암에 바닷길을 밝히는 ‘파래안바위여등표’를 새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등표는 국비 약 6억 원을 투입 된 높이 8m의 규모의 원형 강관구조물로 상부에는 7해리(약13k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등명기를 설치하였다.

해남군 황산면 산소항은 꼬막, 김 양식 등 어업권이 넓게 형성되어 어선들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 양식장 중앙에 수중암초가 존재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해양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번에 설치 된 등표는 고립장애표지*로 특정구역에 위치한 수중암초를 운항하는 선박에 알려줌으로써 안전한 항해구역으로 통항 할 수 있도록 도와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고립장애표지 : 가항수역내에 존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립장애물을 표시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항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속적인 항로표지시설물의 확충·개량을 통해 안전한 바닷길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책임자	소 장	구자현 (061-542-9660)
		담당자	주무관	나형순 (061-544-4461) 김석영 (061-542-9662)

참고

등표 현황 및 사진



설치위치도(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전면해상, 34-31-50.4N / 126-26-8.0E)



설치 전경